

# 2044년 한국불교 전망... 우울한 잿빛

## 불교미래사회학, 통합종단 출범 50년 후 예측

### "대비책 미비시 교세 감소 불 보듯"

통계자료를 통한 미래 한국 불교 예측 결과, 2044년 한국불교는 종교인구 급감, 출가자 감소 등 교세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퇴후)는 1월 31일 '미래 한국불교의 자화상'을 발표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는 2044년의 불교의 미래상을 그렸다. 이번 연구는 1994년 종단개혁의 의미가 50년 후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예측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연구소는 이를 위해 <조계종 교구 활성화 방안 연구>, <불교 및 승려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등을 선행 자료로 활용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우선 종교지형의 변화가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천주교 신자수는 1985년 186만명, 1995년에 295만명, 2005년 514만명으로 조사됐다. 같은 시기 불교 및 개신교에 비해 신자수는 낮지만 증가율은 1985년~1995년 58.23%, 1995년~2005년 74.38%로 10년 사이 크게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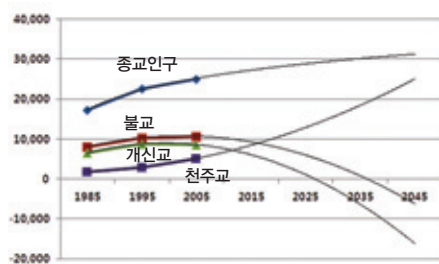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이런 종교인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5년 이후 2044년까지의 종교별 인구 증감 및 향후 예상추이(표1 참조)를 내놓았다.

예측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정체기인 불자수는 이후 점차 감소해 2044년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개신교 역시 감소세가 예측됐다. 최근 10년 사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천주교만이 꾸준히 상승, 2044년 경 천주교 신자수가 25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총인구가 2018년 이후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천주교는 한국 최대 종교가 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연구소 관계자는 "추세선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프에 나타난 극단적 수치보다 방향성이다. 교세 하락에 대한 대비책 없이 현 추세를 방기하면 2044년이 오기 전 불교는 심각한 붕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불교미래연구소는 2044년 출가자수 감소 및 노쇠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9년 12월까지 조계종 행자교육원 수료 현황에 따르면 2000년 528명이었던 수료

<종교지형 장래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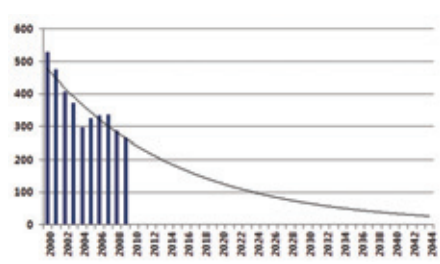
통계자료 통한 미래 예측 시도  
천주교 신자 늘지만 불자 줄어  
신도수 늘일 특단조치 절실

자는 이후 점차 감소해 2005년 326명, 2009년 266명 수료에 그쳤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행자교육원 수료자의 평균 증감율은 7%에 머물렀다.

2009년 266명 수료 현황을 복리공식(a(1+r)<sup>n</sup>)에 적용하면 21명(266×(1-0.07)<sup>35</sup>) 가량의 수치가 산출된다. 마찬가지로 현재 65세 이상 승려를 기준으로 예측하면 2044년에는 노스님 비율이 36.95%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12.3%의 세 배가 넘는 수치다.

연구소는 이런 현상이 종단 인력 부족,

<노쇠해지는 조계종 출가율>



승려인구 노후화 40% 달해  
종단지출 증가·재정 악화 우려  
철저한 미래진단 수립·실천해야

노후복지제도 유지를 위한 종단 지출 증가 및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2044년 경 종단 예산은 현재의 71% 수준으로 퇴보해 실질 가용재원 감소로 사업 여건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종단 예산은 2010년부터 총액이 300억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런 성장세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감소세이다. 더구나 조계종 일반회계 세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분담금이 증가할 수 없는 구조를 지닌 것도 한계로 지적됐다.

연구소 관계자는 "현 종법령에 의해 규

정된 분담금 납부 체계는 종단 내 각 주체의 이해관계 대립 및 종법령 개정의 어려움으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금액이 지연 인상되는 정률 구조 또한 아니다"고 말했다. 분담금 증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2044년 분담금 수입은 현재와 동일한 160억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조계종은 최근 재정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수익사업이 일반회계 세입의 4%에 불과해 빠른 성장세를 통해 유의미한 수익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 밖에도 △종단의 행정시스템이 노후화로 교구와 사찰, 승가와 재가의 소통 불능 △중앙종회 의석수 100석까지 증가 △집행부 3원 체제의 총무원 단일체제 일원화 △사법기능 강화 △교구자치 범위 확대 △사찰 통폐합, 음력 중심의 범회 문화 소멸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소장 퇴후 스님은 "보고서의 모든 예측이 정확한 수치적 근거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밀함이 떨어진다. 현 추세대로라면 불교가 위협에 처할 수 있다. 불교의 미래를 어떻게 희망적으로 만들 것인지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2@hyunbul.com

## 종정스님 비유 논란

###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이 한 공중파 방송에서 조계종 조정을 빗댄 발언이 불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김 논설위원은 불교 편협 의도는 절대 없다며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김진 논설위원은 1월 24일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해 안철수 교수의 정치 행보에 대해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김 논설위원은 "안철수 교수가 보인 정치적 스타일이나 행보로 보면 조계종 종정 같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불자와 일반 국민들은 불교 편협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조계종이란 색안경 낀 그 단어가 지독하게 편협한 맘이 가득하다는 표현이다"고 지적했다.

김진 위원은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안철수 원장의 난해한 위팅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종정 스님들의 실범으로 비유한 것뿐이다. 언론인의 단순한 비유법이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은 또 "성철 스님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종교인이다. 나는 평소에도 불교의 전통적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논설을 쓰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 돈봉투가 선거법 바뀌

## 부정선거 3~10년 공권징지...근본대책 촉구 한 목소리

범어사 선거와 관련해 각 계의 성명서와 근본 대책 방안이 촉구되는 상황에서 중앙종회가 통합선거법 제정에 나서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의장단, 상임 분과위원장, 정책모임 회장단 등이 함께한 연석회의를 2월 1일 열었다. 이들은 3월로 예정된 임시중앙종회에서 '통합선거법' 제정 통과에 합의했다.

'통합선거법'은 총무원장 선거, 중앙종회의원 선거, 교구종회의원 선거, 본사주지 선출 산중총회 등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

히 통합 선거법은 부정선거 적발시 3~10년 까지의 공권징지, 형량 2배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종단도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종단 현안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개선안 마련을 논의했다. 또한 불교 각계의 성명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또 불교계 돈 선거의 근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엄중 처벌과 선거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범어사 주지 선거를 앞두고 돈봉

투가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의 불교평화연대도 종단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31일 발표했다.

정의불교평화연대는 △수수 금품 사회환원 등 범어사 사태 관련자 참회 △파사현정 정신으로 근본 개혁 단행 △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역할 강화 △선거공영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도 1월 27일자 성명에서 선거문화 혁신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왜곡된 선거문화와 풍토를 혁신하는 제도적 보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국민 행복 위한 민생정치 나서달라"

총선을 앞두고 예방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민생정치를 당부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1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환담했다. 한명숙 대표는 "대표가 된 이후 지방을 많이 다녔는데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절절히 전이었다"며 "종교계에서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나서 달라"고 종교계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이에 자승 스님은 "국민 행복과 평화를 최우선 과제로 민생 챙기기를 직접 나서 예정으로 사각 복지를 챙기겠다. 손발을 맞춰 민생 챙기기에 함께 나서달라"고 답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 화합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 "국민 행복과 평화 위해 불자역량 모은다"

### 조계종 불교지도자네트워크, 불교포럼 31일 공식 발족

불교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불자 역량을 모으기 위한 불교포럼이 공식 발족됐다. 조계종 핵심교계 중 하나인 불교포럼은 주요 정책 수립과 추진 등 지원역할을 담당한다.

불교포럼은 1월 31일 서울 AW 컨벤션센터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불교 각계 지도 인사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출범식에 앞서 불교포럼은 임시총회를 통해 상임대표에 김동건 변

호사(범무법민 바른)를 선출했다.

강윤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공공기관)과 김희욱 동국대 총장(교육), 박진열 한국일보 부회장(언론), 박준현 삼성자산운용 사장(금융), 설동근 교육기술기술투진 차관(행정부),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청와대), 성상철 한국병원 협회장(보건의료), 이기흥 대한체육회 부회장(체육), 이정길 방송인(대중예술), 김장실 예술의전당 사장(문화예술), 김중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출판인쇄), 이택순 전 경찰청장(경찰), 원태호 합참차

장(군대)을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자승 스님은 격려사에서 "여러분들은 불교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동량(棟樑)"이라며 "다양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언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임대표 김동건 대표는 "불교포럼을 활성화하는 데 헌신의 힘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불교포럼은 △불교교리토론 및 강연회, 워크숍 개최 △사회현안에 대한 정책연구 및 실현을 위한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壬辰年은 龍의 해입니다!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 051) 722-7755